

김영록 지사, 광양 교촌마을 찾아 추석 민심 청취

‘청정전남 으뜸마을’서 주민 좌담회
마을 공동빨래방·우물정원 등 호응
김지사 “도민 행복 전남시대 실현”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청정전남 으뜸마을’인 광양 교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민심을 살폈다. 광양 교촌마을은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세대별로 명패, 우편함, LED 센서 등을 주민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설치해 마을 경관 개선과 주민 야간 보행 안전성을 높인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교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마을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광양향교 저대길 벽화’와 함께 광양향교, 광양교육지원청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은 만큼 올해는 마을 분리수거장을 손수 설치해 교촌마을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마을 공동 빨래방과 우물 정원은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화합과 소통·편의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교촌 마을회관을 방문해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마을주민 30여명과 현장 좌담회를 가졌다. 마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교촌마을이 2024년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것

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등 준비된 전남도에 하늘이 놀라고 땅도 놀랄 오픈 AI-SK 합작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됐다”며 “전남 전역에 기업이 몰려오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히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된 광양은 이번 구룡산관광단지 지정으로 남해안관광벨트를 이글 핫플레이스로서 관광문화와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도내 모든 마을이 교촌마을처럼 주민들이 한 가족같이 화합하는 공동체로서 으뜸마을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전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나고, 도민들도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지키며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생활이 행복한 전남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구호 아래 전남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 목적의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올해까지 4천500여개 으뜸마을을 조성 중이다. 특히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찾아가는 컨설팅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광양시 광양읍 교촌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좌담회를 가진 뒤 마을회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중요 마을에 대한 연계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로 이어 나가고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도내 8천여개 모든 마을 00만원을 총 3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최근 5년간 133건 발생...산업재해 ‘최대’
여수·광양, 석화·에너지 ‘고위험 지대’
김원이 “디지털 정밀 점검 체계 도입을”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지만 올해 6월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단) 관할 산업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단은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집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산자위 간사, 목포)이 9일 산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리 산단 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단공단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총 13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건, 2021년 25건, 2022년 26

건, 2023년 23건, 2024년 24건, 2025년 상반기 9건이다. 산단 내 사고 유형은 ‘산업재해’가 75건(5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재 31건(23%), 폭발 15건(11%), 유해화학물질 누출 12건(9%) 등의 순이다. 산단별 중대사고는 울산미포 20건, 창원 15건, 여수·온산 13건, 포항 12건, 광양 10건 등 대규모 제조·화학물질 취급 산단에 집중됐다. 여수·광양·미포·온산 등은 석유화학, 정밀화학, 에너지 소재 등을 취급하는 고위험 지대다. 실제 2021년 12월 여수산단의 한 화학업체에서는 탱크 상부 배관 연결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고, 2022년 9월 구미산단에서는 배관 차단 작업 도중 유해가스(TG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원이 의원은 “산업단지 내 반복되는 중대사고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안전 관리 부실의 결과”라며 “고위험 지역에 대한 디지털 기반 정밀점검 체계 도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행정절차 착수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5국3국’ 국가균형성장 1호 모델
산업·교통·관광 10대 공동 사무

전남도와 광주시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번 행정예고는 연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특히 지난달 30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확정된 ‘5국3국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부응한 것으로 전남·광주·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개된 규약안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지향점과 운영 방향을 담은 핵심 설계도다. 설립 목적, 구성, 운영 구조, 재정 체계와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320만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공동

사무가 명시됐다. 10대 핵심 공동사무는 ▲초광역 산업 선도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교통망(도로·철도·대중교통) 구축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이다. 양 시·도는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연휴임을 고려해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한 뒤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연내 특별광역연합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협력해 산업·교통·문화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전남·광주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남·광주는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시원 기자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한가위 EVENT

REAL PRO MAN1
최대 250만원 혜택!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안녕! 사람받는 안마의자 90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기간 : 10/1 ~ 10/31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N1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파나소닉프라자
파나소닉금호월드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